

지역 매 아 리

완주, 군민소통 공감단 합동

주요 관광지 현장 모니터링

완주군이 군민소통 공감단과 함께 주요 관광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완주군은 지난 14일 군민소통 공감단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완주테마버스를 이용해 완주군의 주요 관광지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제고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날 모니터링은 완주군의 주요 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 완주힐조타운, 북합문화지구 누에 등을 함께 견학하면서 개선방안을 고민했다.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군민소통 공감단은 군정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아이디어 제시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현장 모니터링에 참여한 봉동읍 박일배 단원은 "공감단이 되어 우리군 군정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곳곳을 발로 뛰며 현장에서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진심되게 전달하며 열정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소통 공감단 출범 이후 공감단이 군정과 군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추석 감찰활동 집중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만전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26일까지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제시는 자체 감찰반(2개반 7명)을 구성하고 분청, 소속기관, 읍면동 등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하며,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 추석명절 종합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실태 ▲ 비상근로 등 당직 병원·약국 운영실태 ▲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 실태 ▲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무단이석 등 복무위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등이 다.

감찰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할 계획이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은 "명절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당면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 먹거리 정책 세계가 주목

## 아프리카 탄자니아서

### 공무원 10여명 군 방문

#### 경제 우수사례 벤치마킹

완주군의 먹거리 정책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은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 탄자니아에서도 완주군의 우수 정책을 배우기 위해 찾았다.

14일 탄자니아 대통령실 소속 지역 행정 및 지방정부 담당관실 읍(AYOUB) 과장을 비롯한 중앙·지방

공무원 10명이 완주군을 찾아 우수정책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탄자니아 지방행정역량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방정부 농업농촌정책 중 최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자리가 됐다.

완주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로컬푸드 등 농업 활성화 정책을 공유하고, 청사를 둘러보며 각 시설을 소개했다.

읍(AYOUB) 과장은 "세계로 뻗어가는 완주군의 먹거리 정책이 놀랍다"며 "탄자니아에 돌아와 완주군의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원영 완주부군수는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공무원들의 고민과 열정이 필요하다"며 "완주의 정책이 탄자니아 정책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동행치안 더 안전한 김제만들기 시동

## 하반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 안전망 확충 민관협력 당부

김제시는 지난 14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박준배 시장을 비롯해 운주현 김제시의회의장, 송승현 김제경찰서장, 치안협의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행치안! 더 안전한 김제만들기'를 위한 김제시 지역치안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회의내용으로는 범죄환경

개선을 위한 CCTV 안내표지판 제작과 스마트카로등 설치, 승강기용 안심거울 부착,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무인단속기 설치 등 지역치안 인프라 확충방안과 범죄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협연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향후 지역치안 문제에 치안협의회가 주축이 돼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사건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

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치안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송승현 김제경찰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범죄 취약 지역을 찾아 시민들의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치안협의회 위원들의 협력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 교월동 '우리동네 맞춤 해결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구슬땀

김제시 교월동 우리동네 맞춤해결사는 지난 14일 오전 9시에 복지공동체원(대장 최창인)을 비롯한 복지동장님들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세대 등 총 4세대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복지공동체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모(83세) 할머니택을 방문하여 도배·장판, 방충망교체, 노후화된 전기시설 정비 등 지역사회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그동안 복지공동체는 매일 1회 지역사회 어려운 세대의 소소한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왔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였는데, 이날에는 복지공동체를 주축으로 지역업체와 후원자의 자원을 토대로 통장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함께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김제시 교월동 우리동네 맞춤해결사는 지난 14일 오전 독거노인세대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자신의 일을 뒤로 한 채 지역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해주시는 복지공동체와 통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

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교월동이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저소득계층 및 한올타리 행복의 집,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한가위 맞아 이웃사랑 실천 앞장

## 김제 공무원, 소외계층 방문 과일·생필품 등 전달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저소득계층 및 한올타리 행복의 집,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가정과 공무원 1인 1가정 결연 운동을 추진해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나눔 복지를 실천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한 번 돌아보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결연사업은 김제시장을 비롯 전 공무원 940여명과 저소득세대가 1대 1로 결연하여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고, 특히 6급 이상 공무원들은 한올타리

행복의 집 161개소와 별도로 결연을 추진, 직접 방문하여 과일 및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공무원 1인 1가정 결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지난 13일에 결연세대와 한올타리 행복의집을 먼저 방문하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분위기를 조성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은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실천하고 있는 위문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나아가 한결같이, 시민에게, 함께하는 복이, 따뜻한 김제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보건소 '베이비 마사지 교육' 성료

## 관내 영·유아 부모 대상 정서적 교감 위한 실습 진행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지난 12일 관내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친화적 팜베나무로 꾸미어진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서 사랑스런 아기와 함께 베이비 마사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미롭고 편안한 음악을 배경으로 아기와 엄마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밀착 스킨십 및 성장통 예방을 위한 마사지 실습과 모유수유로 면역력을 길러주는 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청하면 거주 쌍둥이 엄마 강성화씨는 쌍둥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 친정어머니와 함께 참석하게

되어 마사지를 하면서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심리적인 상태와 반응표현을 알게 되고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서 다음 기회에도 이러한 교육이 있으면 꼭 같이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에 참여한 대상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식사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유아용 식판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제시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더 알차게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